

광주시청 전용태, 한국 근대5종 새 역사 썼다

펜싱·수영·승마·육상·사격

합계 1470점 3위 사상 첫 메달

아시아 선수 중 역대 두 번째

광주시청 전용태(26)가 대한민국 근대5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일찍부터 메달후보로 꼽힌 전용태는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을 한 명의 선수가 모두 치르는 종목인 근대5종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냈다. 1964년 도쿄 대회부터 올림픽 근대5종에 출전한 한국의 사상 첫 메달이다.

전용태는 이번 대회 첫 3관왕에 오른 양궁 안산에 이어 대한민국 근대5종의 신기원을 개척한 선수로 남게됐다.

전용태는 7일 일본 도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근대5종 남자 개인전에서 5개 종목 합계 1470점을 얻어 조지프 총(영국·1482점), 아메드 엘겐디(이집트·1477점)에 이어 3위에 올라 동메달을 획득했다.

유럽에서 태동한 종목의 특성상 아시아 선수의 메달 획득도 2012년 런던 대회 때 차오중룡(중국)의 남자 개인전 은메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전까지 한국 근대5종의 올림픽 최고 성적은 11위였다.

전용태는 국내의 많은 근대5종 선수들처럼 원래는 수영을 했다. 수영에선 특출나지 못했는데, 서울 체중에 진학한 뒤 근대5종 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시작한 근대5종이 그의 운명을 바꿨다.

서울체고 2학년인 2012년 12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전용태는 청소년 무대에서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린 2016년부터 한국의 대표 주자로 존재감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해 3월 리우에서 올림픽 리허설 격으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

지, 한국 근대5종의 숙원인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길 후보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리우올림픽에서 그는 첫 종목인 펜싱에서 부진해 메달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육상과 사격이 결합한 마지막 종목 레이저 런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도 최종 순위에선 19위에 그쳤을 정도로 다른 종목 성적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레이저 런에 특히 강점을 보여 온 그는 리우의 경험을 약으로 삼아 펜싱과 승마를 보완해 나가면서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2018년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4차 대회에서 준우승해 패조의 컨디션을 뽐냈고, 월드컵 파이널에선 2위에 오르는 등 기량에 물이 올랐다.

이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시즌을 세계랭킹 1위로 마치며 그해 UIPM 시상식에선 연간 최우수선수상까지 받아 한국 근대5종의 위상을 높였다.

2019년에도 기세는 이어져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사상 첫 메달 도전의 기회를 다시 잡았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미뤄지고 한동안 국제대회도 열리지 못했으나 흔들림 없이 기량을 갈고 닦은 전용태는 올해 4월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메달 후보임을 재확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전용태 선수에게 "개인의 영광을 넘어 광주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영예"라고 축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 "전 선수가 지난 7일 도쿄올림픽 근대5종 남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며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5종의 불모지, 비인기 종목의 척박한 환경에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얻어낸 결과라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7일 일본 도쿄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근대5종 레이저런 경기에서 한국 전용태가 동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세르비아와의 동메달 결정전. 0-3으로 패한 한국의 김연경이 표승주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아름다운 4위 ... 김연경 “모든 것 쏟았다” 은퇴 선언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의 도쿄 올림픽 여정이 끝났다. 올림픽 사상 두 번째 메달에 도전했던 이들은 끝내 시상대에는 서지 못했지만, 감동과 열정의 14일을 국민에게 선물했다.

한국은 8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세트 스코어 0-3(18-25 15-25 15-25)으로 졌다.

한국은 지난 2012년 런던대회 4위 이후 9년 만에 4강 위업을 달성했지만, 이번에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장식했던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45년 만의 메달 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주장’ 김연경의 간절했던 올림픽 메달 꿈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김연경은 “내 모든 것 쏟았다. 후회는 없다”며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이기했다.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은메달에 빛나는 세르비아는 33점을 폭발한 티아나 보스코비치의 활약 속에 다시 한번 시상대에 오르게 됐다.

한국의 마지막 경기는 터키 여자사바시에서 함께 활약했던 잘 아는 상대 ‘에이스’ 김연경과 보스코비치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양 팀이 나란히 서브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1세트를 열었다.

보스코비치가 먼저 블로킹 득점을 기록하는 등 연속해서 점수를 만들었다. 김연경도 경기의 첫 득점을 가동하면서 2-3으로 기싸움에 나섰다.

경기 초반 상대의 서브 범실 등 실수가 이어졌고, 박정아가 백어택을 막아내면서 6-6이 됐다. 이어 김희진이 강력한 서브를 연달아 쏘으면서 8-6, 리드를 잡은 한국은 11-8로 3점 차까지 점수를 벌

렸다.

하지만 보스코비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날아올랐다.

17-17의 팽팽한 흐름 속 보스코비치의 강타와 밀레나 라시치의 속공에 한국 수비가 흔들렸고 연달아 4점을 내줬다.

김희진의 후위 공격이 벗어난 뒤 보스코비치가 서브에이스까지 기록하는 등 1세트에만 14점을 쏟아내면서 첫 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 시작과 함께 비앙카 부사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연달아 날리면서 2점을 만들었다.

1-3에서 김희진이 다이렉트 공격을 성공시켰지만 바로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

상대의 서브 범실도 이어졌지만 좀처럼 한국의

연속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11-19까지 점수가 벌어진 뒤 김연경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나섰다. 김연경의 득점 뒤 상대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2-20. 미나 포포비치의 중앙 속공이 성공했지만 김연경이 밀어넣기와 서브 득점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흐름을 끊었다. 그러나 김연경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15-25로 2세트도 내줬다.

3세트에서는 모처럼 한국이 흐름을 주도했다. 김연경이 3세트 시작과 함께 연속 득점에 성공하자 보스코비치도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쏘으면서 응수했다.

김연경 다시 대각 공격으로 3-1을 만들었고, 상대의 공격이 라인을 벗어나면서 4-1까지 한국이 앞서나갔다.

하지만 포포비치의 서브에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4-4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상대의 서브 범실이 나왔지만 김연경의 서브도 아쉽게 라인을 벗어

났다.

5-5에서 보스코비치가 104km의 서브를 연달아 날려 3연속 서브 에이스를 만들며, 흐름을 바꿨다.

정지윤의 공격이 연달아 막히면서 점점 점수가 벌어졌다. 11-19에서 김연경이 상대 블로킹을 뚫아냈지만 보스코비치가 블로킹 득점을 만들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결국 한국은 3세트까지 15-25로 내주면서 도쿄 올림픽 메달 도전을 마무리했다.

김연경은 2012년 런던대회에 이어 두 차례 올림픽 4강 무대에 올랐지만 끝내 메달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라스트 댄스’를 끝냈다.

하지만 김연경은 7월 26일 브라질과의 조별예선으로 시작된 도쿄올림픽 무대에서 ‘원팀’으로 선수들을 묶고, 극적인 한일전 승리·터키전 4강 순간을 연출하면서 ‘왜 김연경이었는지’를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